희망찬 결심대신 감사 먼저

(마태복음14:22~36)

22.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희망찬 결심대신 감사 먼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희망찬 결심대신 감사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 첫 설교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을 십자가 복음적으로 바꾼다면 희망찬 결심이나 소원이나 바람이나 기대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이러한 생각들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르쳐 준 감사와 하나님의 주권에 뿌리를 내린 감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주권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권자의 입장이 된다는 것은 좋고 나쁨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안경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또한 마음의 기준에 부합할 때에만 나타납니다. "돈을 이 정도는 벌어야 성공이다, 자녀가 이 정도 대학은 들어가야 형통한 것이다, 건강은 이 정도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그러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 나오는 감사는 사탄의 가르침을 따른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뿌리를 내린 감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은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빈틈없이 이 땅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속성은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잘되었든 못되었든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한 최고이자 최선의 결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불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바늘 끝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치병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이라는 주권 아래에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복음에 부합하는 절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만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마귀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감사이며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나타날 수는 거짓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19년에 대한 충만한 감사가 2020년으로 이어지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가지각색 모양의 도넛과 같습니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도넛은 모양이 어떻든지 같은 성분의 반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성분은 언제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365일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살고 있기에 아무리 감사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2019년에는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2020년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복음적 새해맞이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열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분석하고 전망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석과 전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알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새해는 단순한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은 계속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형태로 임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사건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이라는 똑같은 성분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별 볼일 없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고 전지전능하지 않으셨다면 나타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바라보고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본문 외에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바다에 빠지지 말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마주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성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때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후에 가나안 복지에 진입할 때에도 범람한 요단강이 길을 막았으나 요단강이 갈라짐을 통해 마른땅을 걸어 복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들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코 바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고, 선민들은 홍해의 바닷물과 요단강물이 갈라져 벽처럼 서게 되어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도식적으로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성분으로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여기서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크(רוּחַ)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성분으로 하는 바다에 하나님의 영이 바람같이 운행하시면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창조 된 세상은 마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 수면 위에 떠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지구와 태양과 별들과 우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써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바다에 떠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 같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명령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들어가면서 바다 위에 떠있게 된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조차 태초에 바다 수면 위에 바람 같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임으로써 공기가 들어간 튜브처럼 바다 수면 위에 떠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을 받아들임으로써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바다 수면 위에 떠있게 되었습니다. 돌멩이도 떠있는 것이고 이웃집 아저씨도 떠있는 것입니다. 바람 같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명령이 또 다른 바람이 되어서 피조물 속에 들어감으로써 떠있으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바람 같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필연적이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유독 사람만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을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인격적 존재

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바다 위에 떠있기 위해서는 바람 같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주권과 명령을 인격적으로 수용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바람 같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권의 바람과 명령의 바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가라앉지 않는 삶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는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직후였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은 제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회적 계급이 낮았던 무리들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수탈과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을 상상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모습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강조하셨던 것은 가까이 온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원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구세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가까이 온 천국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전망하며 희망과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 희망과 소원을 갖는 것이야말로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빠지는 군중들과 제자들을 보시고 군중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게 하신 뒤에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연출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거스르는 바다를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바다로 비유하고 계신 셈입니다. 이 바다 수면 위 피조세계의 주권자는 오직 바람 같으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수면 위에 떠있는 세상에서 소원을 가지게 됨으로써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거스른다는 말은 바람 같으신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부딪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소원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를 꿈꿉니다. 그러나 ‘희망차다’라는 말은 ‘숨이 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물을 삼킬 때에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희망차다는 말은 실상 세상에 빠져서 숨이 차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적 원리를 모른 채 희망찬 새해가 되기만을 갈구합니다.
태초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세상에서 희망과 소원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희망과 소원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희망과 소원과 바람을 갖습니다. 스스로 주권자가 되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주권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은 빠져나가므로 떠있지 못하고 가라앉는 삶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이 수용되면서 태초의 바다위에 떠있게 됩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수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멩이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이 수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독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격적이고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려고 할 때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가라앉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소원을 가질 때에 스스로 주권자가 됩니다. 바람 같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주권과 명령이 수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았다, 마음이 천근만근이다, 마음이 납덩이같다”라는 표현들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가라앉아 버린 마음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마음이 떠있기 위해서는 가벼워야만 합니다. 가볍기 위해서는 바람 같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종교적 규율에 의한 억압을 받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의 성분은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주권은 수용됩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은 세상에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가벼운 마음은 기쁨의 상태입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권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원하는 주권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삶에서는 반드시 감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아무리 배우고 반복해서 언급할지라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마음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 없이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될 수 없으며 마음은 세상 바다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마음은 가라앉을 수 없습니다. 부족함과 결핍이 느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이 발동됨으로써 주어지는 형편에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실제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지옥의 분위기로 오셨다가 천국의 분위기로 바뀌어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화하는 중에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실은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납득할 때에 지옥이 한 순간에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 또한 이 일을 매번 경험하면서도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으나 풍랑을 보게 되었을 때에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은 그대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서 움직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쉬지 않고 바라봄으로써만 세상에 대한 나의 주권은 죽게 됩니다. 나의 주권이 죽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장사를 할 때나 직장생활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에 나의 주권이 죽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나를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여 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은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죽음은 무슨 일에 대해서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 세상에 대한 나의 주권의 죽음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만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인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이 부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함을 통하여 나의 주권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에 감사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지는 삶도 중단되게 됩니다. 마음은 가벼워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쳤기에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봄이 지속될 때에 나타나는 신비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향해야 할 곳은 오직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원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많이 갖기를 희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의 주체성과 적극성이 작용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땅을 향해서는 무한 감사, 절대 감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늘을 향해서는 무한 그리움, 무한 희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한 그리움과 희망이 임계점에 도달할 때에 하늘을 체감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천국이 현실로 체감되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체감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올해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이 있다면 하늘에 대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2020년 새해에 한 순간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단 한 순간도 감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순간도 하늘을 향한 그리움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눈을 떼지 않음으로써 2019년을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채우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과 또한 2020년을 더욱 하나님 부자로 하나님 재벌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새해 첫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눈을 떼지 않음으로써 2019년에 받은 은혜만으로도 더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감사하기를 바라고 또 새해에는 온전히 아버지의 주권만이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